

기아 VS 혼다 '에코 드라이빙' 경쟁

기아차 로체 이노베이션



혼다 신형 어코드



기름·배출가스 줄이는 친환경 경제 운전

▲ 에코 드라이빙 (Eco Driving)='친환경 운전'이라는 뜻으로 안전, 편리, 경제성, 친환경, 연료절약 등을 지향한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캠페인 형태로 활성화됐다. 일본은 혼다, 도요타, 닛산 등이 '에코 드라이브 시스템'을 개발해 자동차에 장착하고 있다.

'기름값 절약' 고유가 시대 틈새시장 공략

기름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에코 드라이빙'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에코 드라이빙'은 기름값을 절약하고 배출가스도 줄이는 친환경 운전법을 뜻한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업체도 '에코 드라이빙'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혼다가 올해 초 이 시스템을 적용한 '어코드'를 내놓은 데 이어 기아차도 최근 연료절감시스템을 장착한 '로체 이노베이션'을 본격 출시했다.

이들 두 업체는 근본 구동 방식이 각각 다른 차량을 앞세워 고유가 시대의 '틈새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 혼다의 가변실린더 제어기술=혼다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자동차용 '에코 드라이빙 시스템'을 선보였다.

'어코드 3.5' 모델에 탑재된 이 시스템의 모체는 V6엔진에 적용된 차세대 가변실린더 제어기술(VCM)이다. 이 기술은 혼다가 독자적으로 개발해 2003년 6월 일본에서 판매된 '인스파이어'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효율적 엔진 제어를 위해 기존 6기통과 3기통의 2단계로만 전환되던 시스템에 4기통 전환 모드를 추가했다.

가변실린더 제어기술은 정속 주행이나 완만한 가속 등 큰 출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3기통 또는 4기통으로 작동함으로써 엔진의 효율을 높여준다.

이 시스템의 작동 여부는 계기판에 표시되는 '에코 (ECO)' 마크로 알 수 있다. 연료 효율이 가장 높은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에코 램프가 점등된다.

경제속도에서 가속없이 정속주행을 하거나 내리막길 등에서 램프가 켜지는 것이다. 연비가 9.0km/l 이상이 나올 때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

◇ 기아차, '로체' 출시로 '친환경·경제운전' 시대=기아차도 최근 출시한 '로체 이노베이션'에 '에코 드라이빙 시스템'을 도입했다.

다만 '로체'의 시스템은 혼다와 구동 방식 자체가 다르다. 직접 엔진 실린더의 변환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경제



기아차 '로체' 에코 드라이빙.

적 연비로 주행 가능한 영역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가장 경제적인 연비로 주행 가능한 운전 영역을 '에코(ECO)' 램프의 점등으로 알려줌으로써 운전자의 정속 주행을 유도한다. 램프 색깔은 녹색·흰색·빨간색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녹색은 연비 성능이 최고인 상태로 주행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 흰색은 연비가 다소 불리한 영역, 빨간색은 연비가 가장 불리한 영역을 표시한다. '경제 운전'을 하면 녹색등이 들어오고 '난폭 운전'을 하면 적색등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 시스템으로 연간 2만km를 주행하면 '로체' 2천cc를 기준으로 매년 98만5천원의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기아차측의 설명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시스템에 직접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의 경제속도를 유도함으로써 20~30%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며 "고유가시대를 맞아 매달 5천대 이상이 팔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초고층 주거문화의 선을 넘었다

호남 최고(39)층 명품아파트 구역지정 확정

그대 한층의 높이를 자랑하는 호고층 주거명품아파트에 이제 시차도 가지 않습니다.

주거문화의 선을 넘어 최대 100m의 쾌적한 주거문화... 39층 초고층에서 누리는 완성적인 공간과 최첨단 편의시설과 최첨단 디자인이 깎아지른 듯한 명품아파트

임동 유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TEL 521-3082~4

연료 가득 채우지 말고 공회전은 절대 금물

■ '에코 드라이빙' 이렇게 ...

최근 기름 소모를 최대한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고유가시대를 맞아 연비를 최적으로 끌어 올리고 환경까지 보호하는 경제적인 운전법이 뜨고 있는 것이다. '에코 드라이빙' 방법을 소개한다.

❶ 급발진, 급가속, 급정거 등 '3급' 금지=주행중 급발진을 하거나 급가속 후 급정거를 하는 것은 길거리에 기름을 버리는 것과 같다. 급가속을 10차례 하면 50cc 가량의 연료가 더 소모되며 급발진을 10차례 하면 100cc가 더 든다.

❷ 공회전을 하지 말라=짧은 시간이라도 차를 세워놓을 때는 시동을 끄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쓸데없이 오랫동안 공회전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연료를 낭비할 뿐이다. 공회전은 오탉한기에도 2~3분이면 충분하다.

❸ 연료를 가득 채우지 말라=쓸모없는 짐은 연료를 소모하게 하는 주범이다. 짐 10kg을 싣고 50km를 주행할 경우 80cc가량의 연료가 더 든다. 또 기름을 넣을 때 '풀(Full)' 주유를 하지 않는 것도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다.

❹ 경제·정속주행을 생활화하라=일반적으로 시속 60~80km를 경제속도라고 한다. 이 속도로 차량을 정속주행하면 가장 좋은 연비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경제속도가 아니라도 고속도로 등에서 정속주행을 하면 연비가 훨씬

좋아진다.

❺ 내리막길 등 '관성운전'으로 짚돌이 운행=분당 엔진회전수가 1천500회(rpm)를 넘을 경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연료공급이 차단된다. 이 경우 연료는 전혀 들지 않고 관성으로만 자동차가 움직인다. 내리막길에서 주로 활용된다.

❻ 타이어 적정 압력을 유지하라=타이어의 공기압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기압이 10% 부족하면 연료가 5%나 더 든다. 타이어 공기압은 일반 정비업소에서 무료로 점검하고 보충할 수 있다.

❼ 에어컨 사용을 줄여라=에어컨을 강하게 틀면 연료가 10~20% 가량 더 들어간다. 따라서 에어컨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에어컨만 쓰기보다는 미니 선풍기나 바람방석 등의 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